

“장애인, 시혜 대상 아닌 ‘능동적 주체’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유튜브 공모전 ‘대상’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해 11월 포스코DX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꿈을 Green다 2025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일상 속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잔소리 염마’라는 친근한 캐릭터로 유쾌하게 풀어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출연·촬영·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중증장애인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수동적인 시혜의 대상이라는 편견을 깨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센터는 이번 수상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2

환경보호 중요성 캐릭터 표현 호평

“올해 공공일자리 연계 고도화 추진”

02년 사업 확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지와 인식 개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전남형 권리 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단순 직무가 아닌 전문 영역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당시자의 시각에서 환경,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길수 센터장은 4일 “이번 수상이 우리들이 훌륭한 땀방울의 가치를 인정받은 이정표라면, 올해는 이를 정규 직무로 안착시키는 원년이 될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열린 ‘꿈을 Green다 2025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공〉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문을 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기술 훈련, 동료 상담, 권리옹호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동아여중-소원정사 ‘찾아가는 떡볶이 가게’ 호응

광주 동아여자중학교는 “최근 동아누리제(I-FESTA) 행사 일환으로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과 자비신행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찾아가는 매콤달콤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아누리제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광섭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문화 행사를 항상 고민했다”며 “나눔과 배려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도계스님과 자비신행회 자

원봉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더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도계스님은 “정성껏 준비한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학생들을 보면 행복함을 느끼고 매우 보람됐다”며 “작은 따뜻함이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여자중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2026년에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담양 대전장학회, 인재양성 장학금 180만원 전달

담양군 대전장학회는 “최근 대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학회 회원과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2명에게 각 30만원, 중학생 3명에게 각 40만원씩 총 180만원이 지급됐다.

대전장학회는 앞서 지난달 19일 임시회의를 열어 장학금 지급 인원과 금액을 확정했으며,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경모 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



를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장학회는 고(故) 이희덕씨가 2015년 8천만원을 기부해 설립된 장학회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담양군=정승균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 릴레이 기부’ 3개 기업 동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최근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인 ‘나눔 하이로·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에 3개 기업이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진행된 이번 릴레이에는 광주 소재 기업인 ▲진성씰테크 ▲성우스틸 ▲아름다운건축사무소가 참여했다.

‘나눔 하이로·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는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나눔 하이로·나눔 기업이 100만원 이상 성금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



계비·난방비·의료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성은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릴레이 기부 챌린지에 더 많은 나눔 주체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광주고법 ‘새해 시무식’…“국민 눈높이 부합 서비스”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2일 오전 청사 종회의실에서 법관 및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오년 새해 시무식을 열었다.

광주고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국민들께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자는 의지를 되새겼다.

특히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적토마의 기운으로 힘을 합쳐 모든 업무를 활기차게 수행하자는 다짐도 함께 했다.

설법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의 권한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관장의 새해 덕담과 시루떡 커텁 등이 이뤄졌다.

정현택 회장은 “2026년은 세계 경제와 국내 상황 모두에서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해가 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지역이 단합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의 상공인과 기관, 단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간다면 불확실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주노동청, 건설현장 안전관리 ‘불시 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시가 발주한 남구 소재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노사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동절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하강으로 근로자 건강 위험 이커짐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예방 특별 교육의 후속 조치 성격도 포함됐다.

적으로 살피고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일수록 상시 점검과 노사 간 소통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찬웅기자〉

조종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취임

광주시는 4일 “제4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으로 조종훈(사진) 소방정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관장은 1993년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다양한 재난 현장과 행정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급대장,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북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 광주소방안전본부 구급팀장 등을 지냈다.

조 관장은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과 체계적인 행정 수행 능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방행정 실천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또 합리적인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의 조직 문화를 이끌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조종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열정 어린 체험교육을 통해 타협 없이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도 시민에게 안전을 선물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에게 민족과 감동을 주는 안전체험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황인 광주 119특수대응단장 취임

광주시는 4일 “제10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황인(사진) 소방정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완도 출신인 황 신임 단장은 1995년 소방공무원으로 입문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북부소방서장을 역임했다.

황 단장은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며 솔선수범하는 성품으로 선·후배 소방공무원에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황 단장은 취임 첫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무등산국립공원 새해맞이 행사의 소방력 배치 현장에서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황인 광주119특수대응단장은 “시민이 안심 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특수사고 대응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문정 GGN 차장 방미통위원장 표창

문정(사진 오른쪽) GGN 글로벌광주방송 경영 기획팀 차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4일 글로벌광주방송에 따르면 문 차장은 기관 명칭 변경과 조직 혁신, 방송 운영 체계 개편을 실무적으로 주도해 글로벌광주방송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수상은 글로벌광주방송 개국 이래 처음이어서 의미가 더하다.

글로벌광주방송은 기존 GGN 광주영어방송에서 GGN 글로벌광주방송으로 방송사명을 변경해 다국어·다문화 종합 미디어채널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영어 중심 편성에서 벗어나 영어 70%, 다국어 30%로 방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다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정 차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시민과 지역사회에 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수희기자〉

부음

▲이호남씨 별세. 박경한씨 배우자상, 박군섭·군철·군택·군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모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모상=발인 6일(화) 오전 9시 광주 빛장례식장 특2호실 (062-452-4000).

▲정혜순씨 별세. 김수광씨 부인상, 김태혁(광주시청)·태완(동탄통증의학과)씨 모친상=발인 6일(화)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